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김 정 열 (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안신원(한양대학교)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김정열

1. 서론

하가점상층문화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경까지, 현재 중국의 내몽고 동남부와 요녕 서부, 특히 시라무렌하와 노합하 유역에서 번영한 일종의 청동기문화이다.(烏恩岳斯圖 2007) 하가점상층문화의 매장유적인 석곽묘에서는 왕왕 중원식의 청동예기가 출토되며, 우리 고고학계는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중원식의 청동예기 그 자체에 대한 흥미라기보다는, 이들과 공반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으로 인해 파생된 관심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파형동검이 기원지가 어디인지, 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청동기문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하가점상층문화의 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의 연대에 숨어 있고, 중원식 청동예기는 그 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가 언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자는 물론 몇몇 연구자도 나름의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 중국학계의 연구자들은 대개 이들을 일괄하여 서주 중기부터 춘추 전기에 걸쳐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여(朱永剛 1987, 項春松·李義 1995, 劉國祥 2000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일본학계의 연구자들은 그 전체적인 연대관에서부터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近藤喬一 1997, 宮本一夫 2000, 岡内三眞 2004, 甲元眞之 2006) 후자의 경우, 연구자 개인의 관점에 따라 청동예기의 연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원식 청동예기의 편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말미암은 바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파형동검의 기원지나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시작 시점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객관적인 현상을 사상하게 하는 소홀함도 불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이들 청동예기의 기형과 문양, 혹은 명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보다 합리적이며 분명한 연대적 위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원식 청동예기의 제작연대를 비파형동검의 성립 연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좌표로 활용하려 한다면, 제작연대 자체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구하기 어렵다. 청동예기는 금속기로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는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祭儀를 목적으로 하여 제작, 사용된 물건이다. 따라서 그것을 소유한 집단은 장기간에 걸쳐 그것을 보관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떤 청동예기가 매납된 유적의 연

대가 그것의 제작연대와 같거나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청동예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중원식 청동예기를 근거로 출토 유적의 연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제작연대 자체에 대한 검토는 물론 그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전자에 비하면 이상할 정도로 부족한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하가점상층문화 제 유적에서 출토한 중원식 청동예기의 제작연대를 평가하고, 이들이 어떤 경위로 중원 청동예기 문화의 역외에서 번영한 이질적 문화 지역까지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가 가지는 편년적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가점상층문화의 주요 유적이 형성된 시점에 대한 이해도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청동예기의 제작 연대

하가점상층문화의 유적 가운데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된 유적에는 小黑石溝, 南山根, 北山嘴, 그리고 霍林河礦區 등이 있다.

1) 小黑石溝 유적

소흑석구 유적(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은 赤峰市 서남쪽 약 40km, 寧城縣 甸子鄉 小黑石溝村 동남쪽의 대지에서 발견되었다.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노합하가 서남에서 동북으로 흐르며, 동으로는 東山, 서남에는 公顯山, 서북에는 鷄冠山이 유적의 삼면을 감싸고 있다. 1975년 寧城縣의 고철회사에서 입수한 청동기 50여 점이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다.

소흑석구 유적에서는 2기의 석곽묘에서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되었다. M8501호 묘는 1985년 현지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때는 이미 유구도 손상되었고, 유물도 임의로 取出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구의 상당 부분이 아직 흔적을 남기고 있었으며, 유물 역시 대부분 회수되었다. M8501는 석곽묘로 잔장 310cm, 너비 230cm, 깊이 210cm이며, 광실 안에서 목관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은 도합 400점이 넘는다. 중원식 청동예기가 발견된 또 다른 묘 1기는 1996년 소흑석구 유적에서 일어난 도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유구의 상황도 불분명하고 출토 유물의 상세한 내용도 알 수 없다. 도굴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석곽묘로 추정되는 하나의 유구(M9601)에서 수점의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M8501의 중원식 청동예기는 모두 11점 16종이다. M8501:1 方鼎[도판1-2]은 용기부와 그 아래에 부착된 火爐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부 평면은 말각된 장방형이며, 구연은 약간 벌어졌다. 용기부의 양쪽 단면에 附耳가 각각 하나씩 부착되었고, 네

모서리에는 짐승형의 扉棱이 두드러지게 장식되었다. 화로 부분의 양쪽 단면에는 창문이, 장변의 한쪽에는 開合式 문이 설계되어 있는데, 문의 왼편 손잡이에는 獸首가, 오른편 손잡이에는 人形이 장식되어 있다. 주요 문양은 용기부의 구연 아래를 一周하는 夔龍紋 띠이다. 이 방정은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1978년 陝西 扶風縣 齊家村 西周시대 청동기 저장 구덩이에서 출토된 別人守門方鼎[도판2-1]을 단 하나의 유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용기부 구연의 기룡문 띠는 서주 전기와 중기에 유행하였고, 齊家村 출토 월인 수문방정 역시 서주 중기경의 것이므로(曹璋 2005), M8501:1 方鼎 역시 이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M8501:2 方座簋[도판1-4] 역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는 용기이며 하부는 ‘方座’라 하는 육면체의 器臺이다. 구연이 약간 벌어지고, 최대 腹徑이 아래쪽에 있으며, 몸통의 좌우 양측에 夔龍形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방좌궤는 서주 전기에 등장하여 후기까지 계속 제작된 기종이다. 특히 몸통과 기대를 直稜紋으로 장식한 방좌궤로는 서주 중기의 癩簋[도판2-2], 柶生簋와 후기의 胡簋, 鬻休簋 등 몇 가지 사례를 꼽을 수 있다.(張長壽 등 1999) 다만 M8501:2 방좌궤의 경우는 서주 후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조되어 있는 3행 14자(중문 2자 포함)의 명문 때문이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許季姜이 尊簋를 만든다. 앞으로 萬年토록 자자손손 영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라.

명문은, 許季姜이라는 사람이 이 궤를 주조하였다는 것과 후손들이 이것을 영원히 사용하기를 기원한다는 축사 등, 매우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許季姜’은 여성의 인명이다. 중국 고대 귀족이 사용한 기혼 여성의 인명이 준수해야 할 규칙에 따르면, 이 인명에는 許國에 출가한 季姜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담겨 있다. 또 계강이라는 이름은 姜姓 가문의 막내라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좌궤는 許國으로 출가한 姜姓 가문의 막내 여성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許國 관계의 청동예기는 대부분 서주 후기의 것이고(甲元眞之 2006), 이 궤에 보이는 명문의 형식 또한 서주 후기에 유행한 이른바 ‘自作器’¹⁾의 그것이므로, M8501:2의 제작연대는 서주 후기일 가능성이 높다.

8501:3호 유물은 보고서에 簋라 하지만 鬲의 일종이다[도판1-3]. 구연은 약간 벌어졌으며, 몸통에는 보통의 우에서 볼 수 있는 附耳가 없다. 용기부 하단에 부착된 권족은 나팔형이며 약간 높은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한 형태이다. 장식도 매우 간단해서 구연 하단부에 長尾鳥紋을 한 줄 둘렀을 뿐이다. 이처럼 장미조문을 구연 아래에 帶

1) 商周시대 청동예기의 銘文 내용은 대개 누가 만들었는지, 왜 제작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제작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왜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제작경위는 제작자가 세운 전공에 다른 포상, 새로운 관직에의 서임, 분쟁과 소송의 경위 등 제작자에게 기념할만한 사건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서주 후기에 들어서는 그런 기념할만한 사건 없이,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서 제의 혹은 기타 의례에 사용할 용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청동예기의 명문에도 반영되어, 청동예기의 명문은 제작자와 제작자의 축원 등 간단한 내용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유형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를 ‘自作器’라 한다.

狀으로 장식하는 것은 서주 중기의 작품이지만(陳公柔·張長壽 1984), 여기에 보이는 장미조문은 날개 부분이 竊曲紋으로 변화하여 이미 도안화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우는 서주 중기라 해도 그 후반 경에 제작된 작품이라 판단된다.

8501:4 罍[도판1-7]는 器高가 24.4cm로 소형이다. 몸통과 목이 짧고 구연은 약간 벌어졌다. 몸통은 어깨에서 권측 부분을 향하여 완만한 사선을 형성하며 하강하고, 어깨에서 몸통까지 이어지는 기룡형의 손잡이가 좌우에 부착되어 있다. 어깨에는 기룡문 띠가 일주하고, 몸통 대부분에는 삼각형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다. 코우모토는 특히 몸통에 장식된 삼각형 수면문을 서주 중기경의 것이라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로 1973년 陝西 鳳翔 權讀村에서 출토한 서주 중기 경의 對罍(도판2-3)를 꼽았다.(甲元眞之 2006) 그러나 罍의 器高는 동종의 일반적인 사례(40~60cm)에 비하면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이 罍는 이미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퇴행 단계의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서주 후기에서 춘추 전기경으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

8501:5 壺[도판1-9]는 圓體의 호로 목이 아주 짧고 圈足이 설계되지 않았다. 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중원지역에서는 유례를 보기 어렵다. 뚜껑의 정수리 부분에는 원형의 꼭지가 있다. 구연은 벌어지지 않고 곧게 뻗었으며 어깨 부분의 곡선도 완만하여 折角이 보이지 않는다. 어깨 양쪽에 대칭의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안에 원래 원형의 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구연 아래부터 몸통에 걸쳐 3단의 장식문양이 있다. 특히 몸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波浪紋은 서주 중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三年癩壺나 番匊生壺에도 보이지만, M8501:5의 파랑문은 파랑 내부를 U자형과 서로 등을 마주한 두 개의 C자형으로 채운, 파랑문 중에서도 후기의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파랑문은 춘추 전기에 유행한 것으로 평가된다.(林巳奈夫 1986) M8501:5와 같은 短頸, 無圈足의 호는 비록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풍격은 대체로 춘추 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소간의 차이를 감안하면, 예컨대 춘추 전기의 蛟龍紋扁壺[도판2-4]에서 유사한 작품을 볼 수 있다.(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1998) M8501:5 역시 춘추 전기경의 작품으로 보아 무난하다.

8501:6 缶[도판1-10]에는 뚜껑이 있으며, 뚜껑 정부에는 나팔형의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 중앙부에는 명문 1자가 있는데, '滕'자이다. 주대의 제후국 가운데 山東의 태산 서쪽에 위치한 滕國(현재의 산둥 滕州)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몸통의 구연은 약간 벌어졌으나 뚜껑과 접합되는 부분에서 內收된다. 어깨는 완만하지만, 몸통의 최대경인 중앙부에 분명한 질각이 형성되어 있다. 어깨 한쪽에 '怪獸形' 손잡이가 있으며, 손잡이 상부에 장식된 원숭이 모양의 꼭지로 뚜껑과 연결된다. 손잡이 반대편에는 細長한 주둥이[流]가 있다. 주둥이에 장식된 기하형의 雲雷紋 장식을 제외하면 몸통이나 뚜껑에 다른 장식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몸통 전체가 와릉으로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동일한 기종 가운데서 같은 기형의 것을 보기 어렵다. 다만 산둥 沂水縣에서 출토된 瓦紋罍 1점[도판2-5]은 折腹에 小平底로 전체적인 작품이 이缶와 매우 유사하다.(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1998) 이 와문되는 춘추 전기의 것이므로, 용기의 몸통 전체를 와릉으로 구성하는 작품이 춘추 전기, 특히 산둥 일원에서 한 때 유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8501:7 尊[도판1-1]은 넓게 벌어진 구연이 몸통을 향해 호선을 그리면서 내수한다. 몸통 아랫부분의 팽창은 좁은 편이며, 丸底로 마감된다. 저부 아래에는 권족이 있다. 몸통 부분에 상, 하 두 줄로 배치된 凸弦紋 사이를 두 줄의 운뢰문, 절곡문 띠가 일주한다. 문양의 배치 양상은 林巳奈夫가 觚形尊 西周 I·II로 분류한 것인데(林巳奈夫 1984)²⁾, 이런 양식은 서주 전기에서 중기까지 유행하였다. 尊의 內底에는 3자의 명문이 보이는데, 亞字形의 族徽 1자(亞자 내부에 형태를 알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잠정적으로 ‘亞某’라 칭한다)와 ‘父丁’ 2자로 이루어져 있다. ‘족휘’는 씨족의 상징이며, 족휘의 아래에 있는 ‘父丁’ 2자는 人名으로, 제사대상을 가리킨다. 즉 이 尊은 亞某라는 씨족에 속한 어떤 사람이 父丁이란 자를 제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명문은 상 후기와 서주 전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서주 중기 이래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M8501:7 尊의 연대는 서주 전기에 가까울 것이다.

匜는 7점이 출토되었다. 8501:8[도판1-8]는 상대적으로 대형이고, 나머지 M8501:9~14, 6점은 소형이다. 기형은 양자가 대체로 유사하지만, 국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8501:8 이의 몸통 한쪽에는 夔龍形의 환형 손잡이가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단면 반원형의 주둥이[流]가 앞으로 길게 뻗는다. 몸통 아래에는 獸足形의 小足이 3개 붙어 있다. 구연 아래를 重環紋 띠가 일주하고, 그 아래쪽은 5줄의 瓦棱으로 장식되어 있다. 몸통을 와룡으로 장식한 匜는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에 걸쳐 유행하였다. 8501:8 이도 같은 시대의 작품이라 생각된다. 8501:9~14의 6점은 대체로 보아 8501:8과 동일한 양식이나 소형화, 明器化한 것으로 좀 더 늦은 시대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M8501:15 盥蓋[도판1-6]는 盥라는 기종의 뚜껑이다. 몸통 부분은 망실되었다. 수는 서주 후기에 유행하였다가 춘추 전기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사용된 盛貯器이다(張長壽 등 1999). 춘추시대의 수는 다소 둔탁한 느낌을 주나, 8501:15 수개는 날렵한 느낌으로 서주 후기의 것이다. 뚜껑 위쪽에 있는 받침 부분은 山東 歷城 北草溝에서 출토된 魯伯兪盥[도판2-6]와 유사한데, 이 魯伯兪盥은 서주 후기의 것이다.(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1998) 구연부를 장식하는 勾連紋도 서주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M8501:15와 동일한 형태의 구연문은 山東 登州 後荊溝에서 출토된 不嬰簋에서도 볼 수 있다. 불기궤는 그 명문을 통해 서주 후기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다. M8501:15 盥蓋 역시 서주 후기의 것이다.

8501:17의 豆形器[도판1-5]는 중국학계에서 보통 鋪라 부르는 것으로, 역시 일종의 盛貯器이다. 淺盤形의 용기부와 X자형의 받침[臺]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부의 구연은 약간 벌어져 있으며, 重環紋을 한 바퀴 장식하고 있다. 용기부는 아래쪽을

2) 林巳奈夫는 商周時代의 청동예기를 殷 중기, 은 후기 I·II·III, 西周 I·II·III, 春秋 I·II·III, 戰國 I·II·III 등으로 편년한다. 은 중기는 商代 중기를 일괄하는 것이고, 은 후기는 상대 후기를 3단계로 나누는 것이며, 서주와 춘추, 전국 역시 상대 후기와 같이 각 시대를 3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I·II·III 은 전기, 중기, 후기로 가름할 수 있다. 또 각 단계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로마자 뒤에 A, B 영문자를 부가하여 표기하였다. 즉 서주 중기 후반이라면 ‘서주IIB’가 된다. 전, 중, 후기의 시간 폭은 각각의 시대를 대체로 3분한 것이다. 서주의 각 기는 대체로 8~90년, 춘추의 각 기는 대체로 100년의 시간 폭을 가진다.(林巳奈夫 1984)

향하여 비스듬히 內收되며, 받침은 나팔형인데 굽고 짧은 편이다. 받침은 약간 파손되었 으며, 전체에 걸쳐 獸面紋이 투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8501:17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鋪 는 서주 중기 후반에 제작된 微伯癘鋪[도판2-7]이다. 구연부에 보이는 중환문은 서주 중 기 이후 후기에 특히 유행하며, 이 보의 그것은 서주 후기의 풍격이다. 따라서 8501:17 鋪는 서주 후기의 작품으로 보아 타당하다.

소흑석구 M9601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는 모두 3점이다. 유구가 파괴된 상태에 서 도굴품의 일부가 수습된 것이므로 본래 더 많은 양의 중원식 청동예기가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M9601:1 罍[도판1-11]는 張長壽 등이 4形3式으로 분류한 環耳三足簋 (張長壽 등 1999)로 뚜껑에 절각이 있고 구연과 복부가 비교적 곧은 다소 특이한 형태이 다. 뚜껑에는 권족형의 손잡이가 있고, 권족 아래에는 象鼻形의 小足이 4개 있다. 뚜껑과 구연에 變形獸面紋을, 몸통에 直稜紋을 장식하였다. 유사한 형태의 유물로는 五年史簋 [도판2-8]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서주 중기 후반의 작품이다. M9601:1 罍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內底에 새겨진 10행 94자의 명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李朝遠 2000)

二月 初吉 丁亥日, 王께서는 康宮에 계셨다. 太室에 이르셨다. 益公이 들어와 師道 를 인도하여 中廷에 섰다. 왕께서는 尹을 불러 師道에게 冊命하였다. “너에게 아름다운 붉은색 珩, 黼黻 문양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검은색 옷, 터키석으로 內를 장식하고 자루를 끈으로 감았으며 붉은색 수술을 단 戈, 다섯 개의 태양을 장식한 旗, 말고삐 를 하사한다.” 師道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天子의 크고 빛나는 아름다운 命을 널 리 알리고자, 나의 文考를 제사하기 위한 보배로운 罍簋를 만든다. 나는 앞으로 만년 동안 보배롭게 사용하여 나의 文考 辛公에게 祭享할 것이다. 이로써 충만함과 조화 로움을, 永命과 善終을 얻을 것이다.

명문은 서주의 어떤 왕이 師道라는 인물을 冊命하고, 그 때 하사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銘文에는 師道를 식장으로 인도한 益公이라는 인물이 보이는 데,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共王부터 懿王 초년 때까지, 즉 서주 중기이다. 명문 의 내용은 ‘冊命賜與金文’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물론 글자체 모두 서주 중기 의 풍격이다.

M9610:2 簋[도판1-12]는 역시 張長壽 등이 IV형2식으로 분류한 三足簋이다. 뚜껑과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껑 정부에는 권족형의 손잡이가 있고, 권족 아래에는 3개 의 소족이 있다. 뚜껑 및 몸통의 구연부에는 모두 도안화된 변형기룡문이 장식되었으며, 몸통 하단에는 3줄의 와룡이, 권족에는 垂鱗紋이 장식되어 있다. 몸통의 최대경이 중간 부분에 있고, 뚜껑의 호선은 완만하게 꺾여 절각은 보이지 않는다. 삼족계는 서주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이 罍는 복부 최대경이 몸통 가운데 부분에 형성되어 좀 더

球狀에 가깝다. 이런 기형은 시대가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주 후기~춘추 전기 경의 작품이라 생각된다.

M9601:3 盤[도판1-13]은 두 개의 손잡이를 가진 圈足盤이다. 구연부는 절각으로 외반하고 물을 담은 몸통 부분은 깊지 않다. 바닥은 편평하며 아래로 권족이 배치되어 있다. 북부 양측에 중환문을 장식한 방형의 附耳가 있으며, 몸통에는 절곡문, 권족에는 변형기봉문이 있다.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 권족반은 서주시대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M9601:3 盤은 몸통이 깊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기적 특징을 보인다. 장식문양으로 사용된 중환문, 절곡문, 변형기봉문 등에 나타나는 풍격은 그 제작시기가 춘추 전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보아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를 전후한 시기의 작품일 것이다.

2) 南山根 유적

南山根 유적은 寧城縣의 서쪽, 八里罕鎮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소흑석구 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이다. 유적은 南山根村의 남쪽 배후에서 동서로 전개되는 얇은 구릉의 경사면에서 확인되었다. 구릉의 북으로는 坤都河가, 남으로는 老哈河가 흐른다. 유적은 1958년에 처음 확인되었으나, 중원식의 청동예기가 발견된 101호 묘(이하 'M101'로 표기한다)가 발견된 것은 1963년의 일이다. M101 역시 현지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고, 유구는 그때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동년 9월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 석곽묘인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규모는 길이가 380cm, 너비는 장변이 223cm, 단변이 180cm, 깊이는 240cm이다. 석곽 안쪽에는 목관이 안치되었다.(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발견 당시 현지인이 자의적으로 유물을 수습하였기 때문에 출토 유물에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습된 출토 유물의 총수는 약 500점을 상회한다고 한다.(秋山進午 2000)

M101:5 鼎은 圓鼎[도판1-14]이다. 풍만한 몸통에 환저로, 깊은 몸통의 깊이를 보아서는 서주 전기까지 소급할 수도 있지만, 삼족의 단면이 반원형인 것을 보면 서주 후기의 작품이다. 몸통에 장식된 3줄의 현문을 제외하면 별다른 장식문양은 없다. 보고에는 몸통과 삼족에 주조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므로, 제작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몸통에 3줄의 현문을 장식한 것도 중원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M101:5 정은 중원문화권의 외곽에서 방제된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함께 출토된 M101:6 정[도판1-15] 역시 원정이지만, 형식에는 M101:5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몸통은 깊지 않고 丸底이며 삼족은 짐승의 발굽 모양이다. 북부에 보이는 3줄의 현문을 제외하면 역시 별다른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 淺腹에 환저, 그리고 짐승 발굽모양의 다리를 가지는 원정은 전형적인 서주 후기~춘추 전기의 작품이다. 몸통의 현문과 그대로 남아 있는 주조 흔적 등이 M101:5와 동일하므로, 역시 방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M101:10은 簠[도판1-17]라 부르는 기종으로, 盛貯器의 일종이다. 보는 서주 후기에

들어 새로 등장한 기종이지만 같은 시기에 등장한 鬮와는 달리 전국시대 이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보는 원래 몸통과 동일한 형태의 뚜껑이 있어 뚜껑을 분리하면 2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M101:10은 그 뚜껑이 망실되었다. 단면 사변형의 몸통은 깊지 않고, 바닥은 평저이다. 몸통 아래에는 각 변에 缺口가 있는 권족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보는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까지 유행한 양식이다. 몸통에 장식된 顧首形의 변형 기룡문과 圈足의 중환문 역시 동일한 시대적 특징을 보인다. 서주 후기에서 춘추 전기까지의 시간 폭으로 평가되는 유물이다.

M101:11 簋[도판1-16]는 소흑석구 M9610:2와 동일한 기종이다. 뚜껑이 있으며 몸통의 최대 구경은 아래쪽에 있어 있다. 권족 아래의 삼족이 높지 않고, 권족과 삼족의 접합부에 獸首가 도드라지게 장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삼족궤’ 중에서도 전형적인 서주 후기~춘추 전기의 양식이다. 구연 아래의 기룡문은 변형되어 도안화되었고, 몸통에는 와룡이 장식되어 있으며, 권족에는 垂鱗紋이 장식되어 있다. 특히 수린문의 형태는 서주 후기 중에서도 최만기의 것이 분명하므로, M101:11 궤는 빨라도 기원전 8세기 이상으로는 소급되기 어렵다.

3) 北山嘴 유적 등 기타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는 대부분 소흑석구 및 남산근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아래에 언급하는 몇몇 지점에서 1~2점의 발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北山嘴 유적은 寧城縣 북부의 北山嘴村 서북 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 노합하가 지난다. 서고동저의 대지에서 하가점하층문화와 상층문화가 중복된 유적이 발견되었다. 중원식 궤가 출토된 유구는 M7501호 묘로, 하가점상층문화층에서 발견되었다. 이 묘 역시 장방형 석곽묘로, 묘광 사변은 불규칙한 천연 석재로 구축되어 있다. 바닥에 석판을 깔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대형 판석과 석피로 차폐했다. 묘광의 크기는 알 수 없다. M7501에서는 청동용기와 병기, 차마기, 장식품 등 청동기 49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가운데 M7501:19 궤가 중원식의 청동예기이다.(寧城縣文化館·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考古系東北考古專業 1985)

북산취 M7501:19 궤[도판1-18]는 소흑석구 M9601과 남산근 M101에서 본 것과 동일한 양식의 삼족궤로, 제작시기에 커다란 차이를 볼 수는 없으나 몸통의 최대경이 북부 중앙에 있고, 권족과 삼족의 접합부에 설계된 짐승의 양식이 다소 간략화된 것으로 보아 춘추 전기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구연 아래에 장식된 절곡문과 북부에 장식된 와룡문도 이런 연대관에 모순되지 않는다.

내몽고자치구 霍林河礦區 부근에서 조사된 청동기 매장 구덩이에서는 중원식 청동예기 2점이 발견되었다.(張柏忠 1982) 이 구덩이는 1975년 霍林河礦區의 沙爾呼熱 채굴구역에서 남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小山의 서남쪽 경사지에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1977년

에 재조사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내몽고 고원의 동쪽 언저리에 해당하는 비교적 평탄한 저산 구릉지대로서, 서쪽으로 錫林郭勒초원, 동쪽으로 大興安嶺산맥에 이어진다. 유구는 조사 당시에 이미 파괴된 상태였고 출토 유물 역시 대부분 향방을 알 수 없다. 발견자의 말에 따르면 중원식 청동예기 2점을 포함하여 모두 8점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한다.

籩 1점은 몸통이 망실된 채 뚜껑만 전한다. 기형은 남산근 M101:10과 동일하며, 구연 아래를 일주하는 변형기룡문과 몸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蟠龍紋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런 기형과 문양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주 후기~춘추 전기에서 널리 볼 수 있다. 罍 1점은 삼족罍이다. 몸통의 형태나 문양이 남산근 M101:11이나 북산취 M7501:19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춘추 전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罍의 바닥 부분에는 3행 15자(중문 2자 포함)의 명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邢姜의 太宰인 它가 보배로운 罍를 만든다. 자자손손 영원히 보배롭게 祭享(하는 데 사용)하라”이다. 邢姜은 姜姓 출신으로 邢國에 출가한 여성을 의미하며, ‘邢姜의 太宰’는 그녀에게 소속된 대집사이다. 보고자는 특히 대집사를 의미하는 ‘태재’가 춘추에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罍를 춘추시대의 작품으로 판단하였다.(張柏忠 1982)

이상에서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의 가능한 제작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및 [도판1]과 같다.

하가점상층문화의 각 유적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의 제작연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토 청동예기 가운데 그 제작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출토 유구마다 다르다. 소흑석구 M8501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서주 전기와 서주 중기의 작품이 각각 1점, 2점 포함되어 있고, 소흑석구 M9601의 경우에도 서주 중기의 작품이 1점 있으며, 남산근 101호 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서주 후기의 작품이 1점 있다. 둘째,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청동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 사이의 것이다. 이 점에서 소흑석구 M8501나 M9601, 남산근 101호 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셋째, 각 유적에서 제작연대가 가장 늦은 것은 춘추 전기까지 내려간다. 요컨대, 하가점상층문화 제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는, 소수를 제외하면, 서주 후기와 춘추 전기의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늦은 것은 춘추 전기의 것이다.

근래 미야모토는, 위의 유적 가운데 소흑석구 M8501을 서주 후기, 남산근 M101을 서주 말기부터 춘추 초기, 북산취 M7501을 춘추 전기로 각각 편년하였다. 그는 곤도에 의해 춘추 전기까지의 시간 폭을 가진 것으로 편년된([표 1] 및 주 2 참조) M8501:4 罍, M8501:6 盃, M8501:8~14의 대소형 匱 등은 모두 서주 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곤도의 편년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새로운 편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M8501:8의 대형 이는 주둥이 부분의 길이로 보아 춘추시대까지 내려갈 수 없으며, 소형의 이와 되는 중원의 동기가 아닌 ‘지방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에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고 한다.(宮本一夫 2000) 근래 오카우치 역시 미야모토와 비슷한 편년안을 제시한 바 있다.(岡内三眞 2004)

출토유구	편호	유물명	편년			비고
			甲元眞之	近藤喬一	金正烈	
小黑石溝 M8501	M8501:1	方鼎	서주 중기	서주Ⅲ	서주 중기	
	M8501:2	方座簋	춘추 초기	서주ⅢA	서주 후기	
	M8501:3	盂	서주 말기 춘추 초기	서주Ⅲ	서주 중기	
	M8501:4	罍	서주 중기	춘추 I	서주 후기 춘추 전기	
	M8501:5	壺	서주 말기 춘추 초기	서주ⅢB	서주 후기 춘추 전기	
	M8501:6	盞	-	서주Ⅲ 춘추 I	춘추 전기	
	M8501:7	尊	서주 초기	서주 I A 서주 II A	서주 전기	
	M8501:8	匜	-	서주ⅢA 춘추 I	서주 후기 춘추 전기	
	M8501:9~14	匜	-	서주ⅢA 춘추 I	서주 후기 춘추 전기	6점
	M8501:15	盥蓋	-	서주ⅢB	서주 후기	
	M8501:17	鋪	-	-	서주 후기	
小黑石溝 M9601	M9601:1	簋	-	-	서주 중기	
	M9601:2	簋	-	-	서주 후기 춘추 전기	
	M9601:3	盤	-	-	서주 후기 춘추 전기	
南山根 M101	M101:5	鼎	-	서주Ⅲ	서주 후기	
	M101:6	鼎	-	춘추 I	춘추 전기	
	M101:10	簋	-	춘추 I	서주 후기 춘추 전기	
	M101:11	簋	-	서주ⅢB	서주 후기	
北山嘴 M7501		簋	-	-	춘추 전기	
곽림하광구 교장갱		簋	-	-	서주 후기 춘추 전기	
		簋	-	-	춘추 전기	
南東溝		簋	-	-	춘추 후기 전국 전기	

[표 1] 하가점상층문화 유적 출토 중원식 청동예기의 제작연대

사실, 외형적 특징을 통해 서주 후기와 춘추 전기의 청동예기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주 중기가 종결될 무렵 서주 사회에 비교적 커다란 예제상의 변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서주 후기에 들면 새로운 기종도 나타나고, 청동예기의 장식문양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Falkenhausen 2006) 반면, 서주 후기와 춘추 전기 사이에는 정치상의 변혁은 있었어도 예제상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청동예기에서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서주 후기와 춘추 전기의 청동예기 편년에 이를테면 표준적 좌표로 활용되는 유적은 河南 三門峽의 虢國 묘지와 山

西 北趙村의 晉國 묘지인데, 이 두 묘지에서 조사된 무덤의 편년 자체에는 아직까지 모호한 점이 많다. 따라서 그곳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은 서주 후기, 저것은 춘추 전기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위에 제시한 [표 1]에 서주 후기와 춘추 전기의 연대를 병기한 유물이 비교적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미야모토의 견해는 그런 점에서 경청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흑석구 M8501이나 남산근 M101 혹은 북산취나 광림하광구 등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예기 가운데는 그 형태나 문양으로 보아 서주 말기~춘추 전기의 것 가운데서도 비교적 후기의 것으로 생각되거나 혹은 춘추시대의 작품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야모토가 곤도의 편년안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지방기’ 개념에도 난제를 피하고자 하는 편의적 발상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가 ‘지방기’라고 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지방’이 어느 지방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긴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요서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면 이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요서 지역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왕에 발표된 연구도 있지만, (蘇赫 1982), 그들은 제작기법이 조악한데다 문양이 없거나, 있더라도 중원의 그것과는 그 풍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미야모토가 ‘지방기’라 지목한 소흑석구 M8501의 몇몇 출토품은 그 기형이나 문양까지 중원의 것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지방기로 처리하여 버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가 지방기로 지목한 M8501:4 鬲나 M8501:8~14의 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기형이나 문양으로 보아 서주 후기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그 가운데 어떤 것, 예컨대 M8501:6 盃과 같은 경우에는 기형과 문양 등의 풍격 때문에 춘추시대 이전까지 소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소흑석구 M8501이나 남산근 M101을 서주 후기까지 소급하는 주장에서 발견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그것을 매납한 유구의 연대가 동일하다는 전제이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청동예기는 금속기로 내구성이 높고, 또 제기로서의 속성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따라서 청동예기를 근거로 유적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더욱이 동일한 묘에서 그 제작연대가 다양한 유물이 함께 출토될 경우, 그 난도는 배가된다. 때문에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해당 유물이 어떤 경로로 그 유구에 매납되기에 이르렀는지의 문제이다. 이제 장을 바꾸어 중원식 청동예기들이 어떤 경로로 저 요원한 요서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청동예기의 유입 경위

1) 중여설 비판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식의 청동예기는 어떤 경위를 거쳐 황하 중·하류 유역의 중원지역에서 요서지역까지 옮겨지게 되었을까? 먼저 확인해 둘 것은, 이것이 중원인의 직접 이주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유적과 유물에 보이는 문화적 제 양상은 중원 지역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된 유구는 霍林河礦區의 1례를 제외하면 모두 석곽묘인데, 기본적으로 이 묘제는 중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가점상층문화의 석곽묘에 매납된 청동예기는 당시의 중원 지역에서 유행한 청동예기의 규범적인 부장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매납되었다.³⁾ 이상의 사실은, 중원식 청동예기를 부장품으로 사용한 자들이 중원적 문화규범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청동예기들이 중원에서 하가점상층문화 권역으로 증여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중원인의 직접 이주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며, 실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연구자도 있다.(秋山進午 2000) 그러나 증여설을 부정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 가운데는 더러 명문을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모두 4점인데, 그 중 3점에는 작기자와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흑석구 M9601:1 궤는 師道라는 자가 周王으로부터 책명과 사여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즉 이 궤는 사도가 주왕에게 받은 은총을 널리 기념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주조한 것이다. 또 M8501:2 방좌궤는 허계강이라는 여성이, 광림하광구에서 출토된 보 1점은 邢姜의 太宰인 ㄷ라는 자가 제작한 것이다. 이들이 청동예기를 제작하게 된 경위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문의 제의 등을 위해 제작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이 양자의 말미에는 모두 자자손손 영원토록 귀중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축사가 붙어 있다.

일찍이 지적한 바 있듯이, 청동예기는 제례의 장에서 사용된 용기로서 그것을 제작하고 소유하는 혈연집단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소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동예기는 특정한 혈연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이며, 다른 혈연집단에게 함부로 증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청동예기는 일반적인 위신제와 동일한 가치기준으로 형량할 수 없는 물건인 것이다.(김정열 2009) 이렇게 보면,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에 증여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2) 東胡와 山戎

중원인의 이주나 증여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면 하가점상층문화인의 주체적인 입수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리고 또 언제 이루어졌을

3)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 청동예기의 조합은 鼎, 簋, 鬲, 甗 등의 食器, 尊, 彝, 壺, 盃 등의 酒器, 그리고 盤, 匜 등의 水器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鼎은 신분의 고하에 따라 9, 7, 5, 3 등의 홀수로 채감하며, 궤는 정의 숫자보다 하나 적은 짝수로 채감하여 조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가운데 특히 복수로 구성되는 정과 궤의 조합은 '列鼎制'라 하며, 해당 시대의 청동예기 부장에 나타나는 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까?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 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가점상층문화 영위 주체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특정한 ‘민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가점상층문화가 분명히 인지되기 시작한 때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동호(靳楓懿 1987, 吳江原 1997)와 산융(朱永剛 1987, 林滢 1996) 등이 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에는 모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동호설을 살펴보자. 동호설의 주요한 근거는 하가점상층문화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문헌사료가 전하는 동호의 공간적 분포 범위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史記》와 《戰國策》 등에는 전국시대 趙의 영역인 常山, 代, 上黨 등의 동쪽에 동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사기》에는 燕長城의 북쪽에 동호가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연장성은 서쪽의 造陽에서 동쪽의 襄平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기》에는 또 진한시대에 들어 세력을 크게 신장한 흉노의 동쪽에 동호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전국시대 趙는 山西 북부 일대에, 燕은 河北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장성의 기점과 종점으로 언급된 조양과 양평은 각각 북경 북쪽 약 260km와 遼寧 遼陽市로 비정되며, 진한대의 흉노는 몽고고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내몽고 동남부 일대까지 그 세력을 미쳤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내몽고 동남부에서 요녕성 서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하가점상층문화 유적과 동호의 활동 지역은 분명히 중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문헌자료들이 모두 전국시대 이후의 것이라는 점에 있다. 《전국책》과 《사기》는 모두 前漢 후기에 편집된 책이며, 이들이 전하는 동호 관련 정보는 모두 전국시대 이후의 것이다. 이처럼 전국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동호의 분포 범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서주 후기 혹은 춘추시대까지 소급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양자 간의 시간적인 거리를 사상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商周시대의 청동기 명문이나 춘추시대에 관한 비교적 신뢰할만한 기록으로 꼽히는 《춘추》 혹은 그 주석서인 《左傳》 등에는 동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춘추시대까지 중원인들이 동호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동호는 전국시대 이후에 들어서야 중원인들의 시야에 들어왔으며, 동호에 대한 기록 역시 전국시대 이후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가점상층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경까지 약 4세기에 걸쳐,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번영했다. 그것은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의 퇴적층이 전반적으로 두껍지 않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며, 서주~춘추 전기까지의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된 소흑석구의 석곽묘가 해당 유적의 퇴적층 가운데 늦은 단계의 것이라는 사실과도 합치된다.(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그러므로 하가점상층문화와 동호의 지리적 위치가 중첩된다고 해서 양자를 즉각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山戎은 어떨까? 산융은 동호와 달리 《춘추》와 《좌전》 등 중국 고대문헌에 비교적 일찍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산융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춘추오패의 하나로 이름을 널리 알린 齊 桓公의 산융 정벌이다. 기원전 664년(魯 莊公 30년),

제 환공은 노 장공과 연합하여 산융을 공격했다. 《좌전》은 이때의 전쟁이 ‘燕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국어》 齊語와 《관자》 諸篇에는 그 경위가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는 환공이 이 원정길에 산융은 물론 습支와 孤竹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산융이 연, 영지 및 고죽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연, 영지, 고죽 등이 산융의 거주 지역을 탐색하기 위한 지리적인 좌표로 활용된 것이다. 이 중 영지는 《漢書》 지리지에 遼西郡에 속한 한 縣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한서》의 저자인 班固는 다시 영지조에 주석을 달아, 이곳에 ‘孤竹城’이 있다는 정보도 덧붙였다. 요서군 영지현은 현재 하북 盧龍縣 인근으로 비정되기 때문에, 이윽고 산융 역시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일대는 또한 서주시대 이후의 봉지인 현 北京 부근 琉璃河 유적의 서북쪽에 해당하여, 제 환공이 연을 구원할 목적으로 산융을 정벌하였다는 전체 사건 경위와도 잘 부합된다.

그러나 산융이 요서에 있었다는 견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渡邊英幸은 山戎遼西說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을 전제한 바 있거니와, 그 대강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 보자.

일찍이 呂思勉은 《국어》와 《관자》에 등장하는 제 환공의 산융 정벌 기사는 춘추오패의 하나로 군림했던 환공의 업적을 과장하는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즉 환공의 산융 정벌 기록이, 그가 천하에 걸친 지배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설화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게다가 제 환공의 원정 목적이 연의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도 문제이다. 錢穆이 지적하였듯이, 연이 《춘추》에 등장하는 사례는 모두 7번인데, 최초의 사례인 환공 12년(기원전 700), 13년의 연은 지금의 南燕(河南 延津)을 가리키며, 복원은 그 후 100년이 훨씬 지난 기원전 554년(襄公 29년)이 되어서야 ‘복연’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산융 정벌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해 11년 전, 장공 19년(기원전 675)에도 연이 등장하지만 이 역시 남연에 관련된 기록이다.⁵⁾

4) 《國語》 齊語에 등장하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위 수년이 지나 동남쪽에 음란한 자가 많았다. 萊, 莒, 徐夷, 吳, 越 등과 싸워 31국을 복속시켰다. 이어 남쪽으로 향하여 楚를 정벌하고 汝水를 넘고 方城을 지나 汶山을 관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 왕실에 비단을 공납하게 하고 귀환하였다. (그리하여) 荊州의 제후 가운데 감히 와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아예 북쪽으로 향하여, 山戎, 습支, 孤竹을 정벌하고 귀환하였다. (그리하여) 바닷가의 제후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서쪽을 정벌하여 白狄의 땅을 공략하고 西河까지 이르렀다. 배를 나란히 연결하여 뗏목을 만들어 黃河를 건너 石枕에 도달하였다. 수레를 매달고 말을 묶어 太行과 辟耳의 계곡, 拘夏를 넘어 서쪽으로 진군하여 流沙와 西吳를 정복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周에 성을 쌓았으며, 絳에서 (晉의) 胙位를 회복시켜 주었다.……”

5) 燕의 初封地가 지금의 北京 부근이라는 점은 北京市 인근의 琉璃河 유적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琉璃河 유적이 멸절된 西周 중기 이후 한동안 燕의 종적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史記》 燕召公世家에도 최초의 연후인 ‘召公’ 이후 惠侯까지 9대에 걸친 燕侯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연소공세가에 따르면 혜후의 시기는 대체로 西周 共和期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연소공세가에 연후의 世系가 전해지긴 하지만, 그 사적에 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어, 연의 역사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연의 사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莊公 16년(기원전 675) “宋, 衛와 함께 周 惠王을 정벌하였다. 혜왕은 濶으로 도주하였다. 혜왕의 아우인 頽를 周王으로 옹립했다”는 기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기록은 《좌전》에도 보이지만 楊伯峻이 지적하였듯이, 이 역시 燕이 아닌 南燕의 사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楊伯峻 1990)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면 춘추 전·중기까지

그렇다면 장공 30년(기원전 664)에 등장하는 산융 정벌의 기록이 등장하는 ‘연’ 역시 남연을 가리키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돌이켜 보면 《좌전》에 보이는 환공의 산융 정벌에서 제와 함께 당사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의 북방에 있는 연이 아니라 오히려 남방에 있는 노뿐이다. 연은 이 기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와타나베는 이상과 같은 논의 끝에 환공이 정벌한 산융은 하남 북부에서 하북 남부, 태항산맥의 동남쪽 일대에 펼쳐진 구릉 및 산악지대에 거주한 戎族의 一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渡邊英幸 2010) 와타나베의 주장이 보여주는 합리성은 요서 지역에서 번영한 하가점상층문화와 산융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

산융설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기원전 771년 서주 왕실이 洛陽으로 도읍을 옮긴 이른바 周室東遷 사건을 전후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戎’의 활약상에는 주목해 볼만한 점이 있다. ‘戎’은 서주시대의 청동기 명문에도 왕왕 등장하며, 주 왕실과 그 제후국으로 대표되는 중원의 문화적, 정치적 공동체에 일체화되지 않은 이질적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때때로 주 왕실과 그 제후들에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이며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서주 왕실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遷都를 불가피하게 한 것도 犬戎의 鎬京(현재의 陝西 長安 일대) 공략 사건이었다.

서주 왕조가 멸망할 즈음 戎系의 諸族이 중원으로 남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古本竹書紀年》에는 서주 宣王 때에 秦仲으로 하여금 戎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실패한 일(선왕 4년, 기원전 824), 군대를 파견하여 太原戎를 공격하게 한 일(동 31년, 기원전 797), 왕이 條戎과 奔戎를 공격한 일(동 36년, 기원전 792), 晉人이 北戎을 汾隰에서 격파한 일, 戎人이 姜侯의 邑을 멸망시킨 일(동 38년, 기원전 790), 王이 申戎를 공격한 일(동 39년, 기원전 789) 등 주 왕실과 융에 관련된 전쟁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진중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였다는 ‘융’은 甘肅 중남부, 태원융이나 조용, 분융 등은 山西 중남부 일대로 그 위치가 비정되므로, 융계의 제족은 그 무렵 황하 북안에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 및 산악 지대에 걸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서주 말기 주 왕실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중원문화와는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를 소유한 융계의 제족이 남하하여 중원 제국과 충돌하기 시작하였으며, 춘추 전기에는 황하 중하류 일원의 華北平原까지 그들이 일으킨 소용에 휩싸이게 되었다. 융계의 남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북융’이다. 《좌전》이 전하는 북융 관계의 기록을 살펴보면, 북융은 기원전 714년(노 은공 9년)에 鄭(하남 新鄭)을 침략하고, 8년 후인 기원전 706년(노 환공 6년)에 제(산둥 淄博)를 공격하였으며, 기원전 702년(노 환공 10년) 또 다시 제를 공략하였다. 《춘추》에는 기원전 649년(노 희공 10년) 齊와 許(하남

연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며, 중원의 제후들과도 별다른 교류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許昌)가 산융을 공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북융 관계 기록은 《후한서》 西羌傳에도 보이는데, 서주 말기의 宣王 때 晉(산서 冀城)이 汾隰(산서 臨汾, 襄汾 일대)에서 北戎을 격파하였다는 기록과 주 왕실이 낙읍으로 동천한 뒤 2년이 되는 해(기원전 769)에 邢侯(邢은 하북 邢臺)가 北戎을 대파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좌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 북융과의 충돌 과정에서 당사자로 개입한 중원의 제후국에는 鄭, 齊, 許, 晉, 邢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융은 기원전 8세기 초에서 7세기 중반에 걸쳐 지금의 山東 중부에 위치한 제는 물론, 하북 남부의 형, 하남 중부의 신정과 허창, 산서 남부의 익성 등에 위치한 제후국과 교전하였다. 당시 태항산맥의 남쪽과 동쪽으로 전개된 하남, 하북, 산동의 평원지대 일대에서 용계 제족의 남하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원 제후국의 반격 또한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융의 주요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가 산동의 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융이 제 환공의 공격을 받게 된 것 또한 용계 제족의 남하운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기》에서 북융과 산융이 互用되고, 杜預가 《좌전》의 주석에서 산융과 북융을 동일체라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 가운데 3점에는 그 제작지 혹은 작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고 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등장하는 許나 邢은 북융과 직접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또 나머지 하나인 滕은 당시 山東 滕州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은 산둥 태산의 서쪽 일대로 魯의 도읍인 곡부에 인접한 곳이다. 齊가 산융을 공격하기 위해 제의 남쪽에 위치한 노와 연합하였다는 기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들은 태산 서쪽 일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결론은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는 대부분이 기원전 8세기 초에서 7세기 중반 경, 용계 제족과 하남, 하북, 산둥 일대의 제후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입수되었다는 것이다.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예기 대다수가 서주 후기에서 춘추 전기에 걸쳐 제작된 것이고 그 하한선이 춘추 전기 경이라는 점은 원래부터 중원식 청동예기의 유입 시점이 대개 춘추 전기 경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시점은 용계의 제족이 남하하여 화북평원 일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중원 제후국과의 교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다. 그 과정에서 청동예기가 약탈되고, 이윽고 먼 곳까지 옮겨지게 되었다는 추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甲元眞之 2006)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청동예기가 이 무렵에 이동을 시작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원식의 청동무기, 戈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분포 지역에서는 중원식의 청동예기는 물론 청동무기도 왕왕 발견된다. 소흑석구와 남산근 유적에서도 역시 중원식 동기가 각각 4점, 2점의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 청동과는, 趙鎮先과 成璟瑒의 형식분류(趙鎮先·成璟瑒 2007)에 의하면, 소흑석구M8501:42, 소흑석구M9601:168, 소흑석구85ZJ:10·11, 남산근M101:15·17 등 6점[도판3-1~6]은 A형 1식에 해당하며, 남산근M101:16 1점[도판3-7]은 A형 2

식에 해당할 것이다. 조진선 등의 연구에 의하면 A형 1식의 연대는, 서주 말기에서 춘추 전기에 해당하며, A형 2식은 춘추 전기에서 중기에 해당한다. A형 1식 동과와 유사한 사례로는 河南 三門陝 上村嶺 虢國 묘지의 M2001(虢季墓)에서 출토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보고자는 이 꼭계묘를 서주시대의 최만단으로 편년하였다. 한편 A형 2식과 유사한 것으로는 하남 낙양 中州路의 '2式戈'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례인 M6:20 과가 출토된 M6은 춘추 중기로 편년된다. 이들 이외에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에서 그보다 이른 시기로 소급되는 청동과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청동과에는 서주 후기의 가장 늦은 시점부터 이르면 춘추 초기 경의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중원식의 청동예기 대부분이 제작된 시점 그리고 용계의 제족이 화북평원 일대에 빈번하게 출현한 기원전 8세기 초에서 7세기 중반의 시간적 범위와 일치한다. 청동무기는 그 무기로서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보존과 사용 주기가 청동예기보다 훨씬 짧다. 그런 의미에서 청동과의 형식에서 확인되는 연대는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한 실제의 시점에 훨씬 가까울 수 있다.

남은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가 이들 청동예기를 직접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분포지역인 요서 일대에서 하북, 하남, 산둥 일대의 화북평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내몽고 적봉지에서 산둥성 치박시까지의 거리는 줄잡아 약 600km에 이른다. 하가점상층문화인이 이 정도의 거리를 직접 이동하여 화북 평원 일대까지 원정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가점상층문화인들이 중원식의 청동예기를 입수하기에 이른 과정에 직접적인 정벌을 통한 획득보다는 화북평원 일대에서 활약했던 용계 제족의 중계를 통한 입수를 상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4. 결론

비파형동검의 출현은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는 사건이다. 비파형동검이 기원지가 어디이며 그것이 언제 출현하였는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 하가점상층문화의 그것이다. 중원식 청동예기는 하가점상층문화 주요 유적에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의 편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로 널리 활용된다. 중원식 청동예기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편년자료로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는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까지 넓은 연대의 폭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연구자 개개인의 동북아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에 따라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최근, 특히 일본학계에서는 소흑석구 유적이나 남산근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원식 청동예기를 서주 후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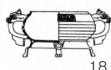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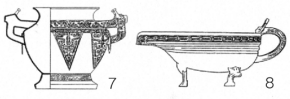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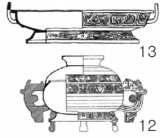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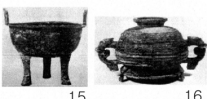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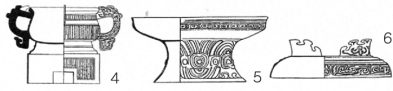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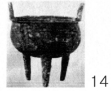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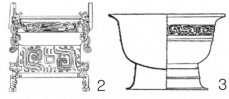


일괄 소급하여 이해함으로써 동북아 청동기문화의 기원 시점을 기존의 그것보다 좀 더 올려 보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의 결말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소흑석구와 남산근을 포함한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의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중원식의 청동예기 중에는 예외 없이, 서주 후기에서 춘추 전기까지의 연대 폭을 가지는 것은 물론, 춘추 전기까지 제작연대를 내려 보아야 할 유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도에서 왕왕 나타나는 청동예기의 제작연대와 출토 유구의 성립연대를 이른바 ‘경사편년’하지 않고 등치하는 전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 출토되는 중원식 청동예기는 대체로 8세기~7세기 중반 경, 용계 제족이 화북평원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과정에서 약탈의 형식으로 획득되고, 그것이 다시 하가점상층문화가 번영한 요서 지역 일대까지 전이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과정의 시간을 다소라도 고려한다면, 춘추 전기의 청동예기를 매납한 하가점상층문화 석곽묘의 연대는 결국 8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소급되기 어렵다.

하가점상층문화에서 확인되는 중원식의 청동예기가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그것의 형태나 문양, 혹은 명문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보편타당한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것이 중원문화의 역외 지역에서 출토될 경우, 그 이전의 가능한 경로는 물론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같은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중원식 청동예기가 가지는 편년적 의의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年 第2期.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小黑石溝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寧城縣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7,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1977年 第6期
- 寧城縣文化館·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考古系東北考古專業 1985,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關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文物出版社.
-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年 第2期.
-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年 第4期.
- 林溪 1996,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知識出版社.
- 楊伯峻 1990, 《春秋左傳注(修訂本)》, 中華書局.
-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 李朝遠 2000, <史道簋銘文考釋>, 《草原瑰寶-內蒙古文物考古精品》, 上海書畫出版社.
- 張柏忠 1982, <霍林河礦區附近發現的西周銅器>, 《內蒙古文物考古》 1982年 第2期
- 張長壽 등 1999,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文物出版社.
- 趙鎮先·成璟瑯 2007, <關於中國東北地區和朝鮮半島銅戈的考察>, 《內蒙古文物考古》 2007年 第2期.
-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 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1998, 《中國青銅器全集》, 文物出版社.
- 陳公柔·張長壽 1984, <殷周青銅容器上鳥紋的斷代研究>, 《考古學報》 1984年 第3期.
- 項春松·李義 1995, <寧城小黑石溝石槨墓調查清理報告>, 《文物》 1995年 第5期.
- 강인욱 2009, <小黑石溝로 본 하가점상층문화의 새로운 인식>, 《한국청동기학보》 4호.
-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이청규 외,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吳江原 1997, <西遼河上流域 青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 《한국고대사연구》 제12집.
- 甲元眞之 2006.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と社會》, 同成社.
- 岡内三眞 2004, <東北式銅劍の成立と朝鮮半島への傳播>, 春成秀爾·今村峯雄 편,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宮本一夫 2004, <青銅器と彌生時代の實年代>, 春成秀爾·今村峯雄 편,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 近藤喬一 1997, <遼寧青銅短劍の起源について>, 《日本中國考古學會會報》 第8號.
- 林巳奈夫 1984, 《殷周時代青銅器の研究》, 吉川弘文館.
- 林巳奈夫 1986, 《殷周時代青銅器紋樣の研究》, 吉川弘文館.
- 秋山進午 2000, 《東北アジア民族文化研究》, 同朋舍.
- Falkenhausen, Lothar Von 2006(吉本道雅 역), 《周代中國の社會考古學》,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小黑石溝 M8501	小黑石溝 M8501	南山根 M101	北山嘴 M7501	霍林河礦區
春秋 前期					
西周 후기					
					
西周 중기					
西周 전기					

[도판1]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예기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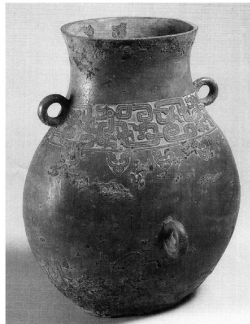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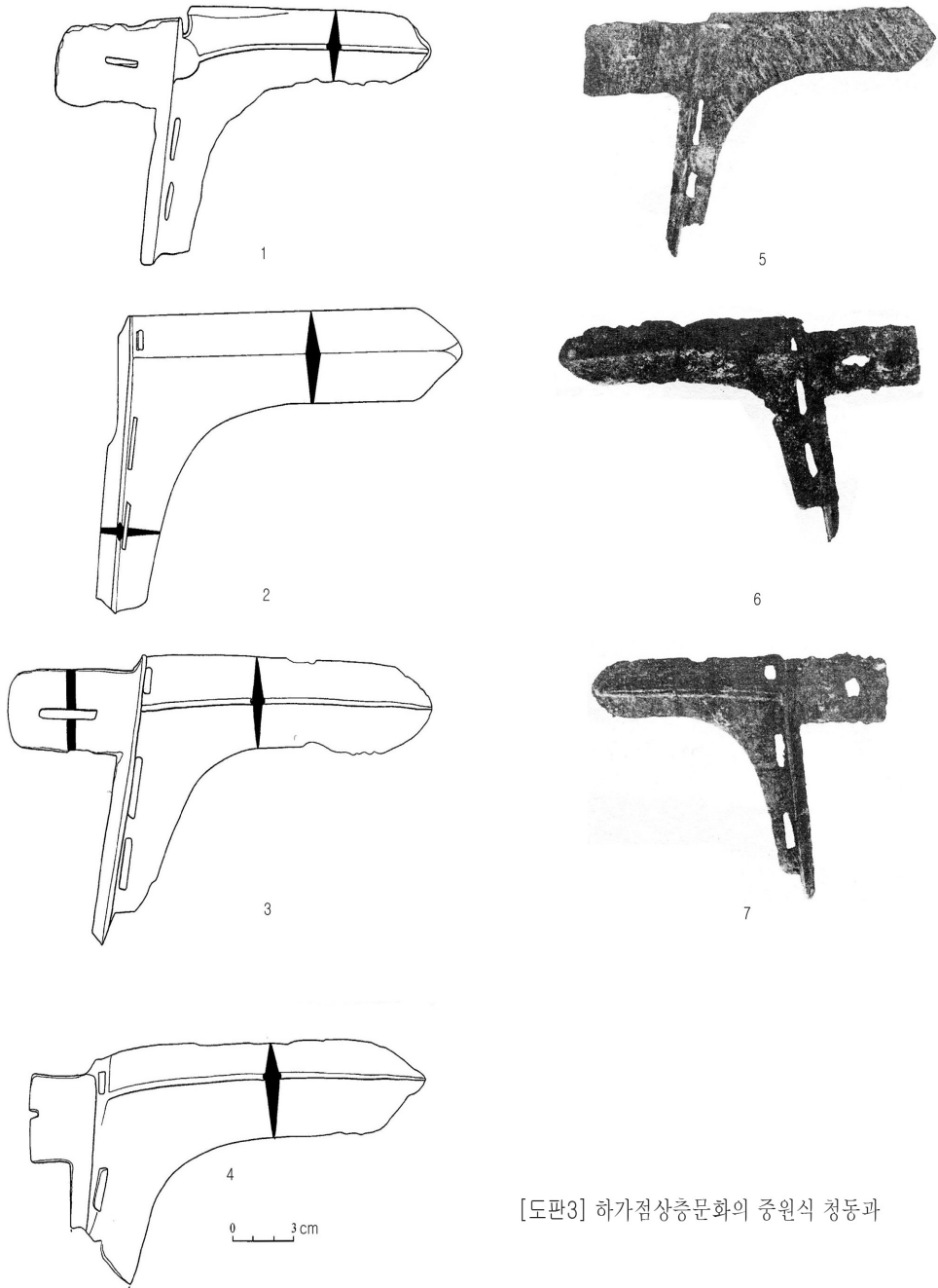
5 6



7 8



[도판2] 중원식 청동예기 각종



[도판3]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식 청동과

